

음악교사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최 미 영**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교사의 교사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음악교사효능감을 구성하는 직무수행 영역과 구성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음악교사효능감 예비척도를 제작하고 463명의 초·중등 음악교사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5개 영역에서 9개 요인의 총 31문항에 대한 구인타당성이 확인되었고, 최종 척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신뢰도가 산출되었다. 또한 음악교사효능감 척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간의 상관 분석 결과는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준거타당도가 입증되었으며, 음악교사효능감은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과 경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음악교사효능감(music teacher efficacy), 척도 개발(scale construction), 척도 타당화(scale validation)

차 례

I. 서론

II. 연구방법

- | | |
|---------|---------|
| 1. 연구대상 | 2. 연구절차 |
| 3. 측정도구 | 4. 자료분석 |

III. 연구결과

1. 타당도와 신뢰도
2. 연구대상자 관련 변인들에 따른 음악교사효능감

IV. 결론 및 논의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B00490)

** 대구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조교수(choimiyoung@dnue.ac.kr)

I. 서론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인간의 행동과 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ndura, 1977; 1997). 자기효능감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반두라(Bandura)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반두라(2006)는 자기효능감을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행동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개념에 근거하여 교사효능감을 개념화하였고 교사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이 교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해왔다. 교사효능감은 학습자의 학습에 교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사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믿음, 즉 교사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을 의미한다(Ashton, 1985).

학교의 조직을 이루는 모든 요인들 중에 교사는 학생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면서 학업성취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현실적으로 부모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미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박관성, 1999).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인 교육을 구성하는 그 어떤 요인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며, 교사의 교수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 중 최근 들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인이 바로 교사효능감이다. 교사효능감 연구는 교사효능감이 교수행동이나 학생들의 학업성취 등 여러 교육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 교사 자신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교사의 효율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교사효능감이 교수학습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김아영, 김미진, 2004).

교사효능감 연구에 대한 주된 이론적인 틀은 두 가지 관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하나는 로터(Rotter, 1966)의 통제소재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반두라(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이다. 교사효능감의 초기 연구는 교사효능

감을 교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강화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즉 강화의 통제가 자신의 내부 또는 자신의 외부 환경에 있다고 보는 로터의 통제소재이론에 근거하여 1976년 랜드(RAND) 연구에서 교사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2개의 문항을 개발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로터의 이론에 기초한 후속 연구들은 외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들의 일반적인 믿음은 ‘일반적 교수효능감(general teaching efficacy)’으로, 자신이 그것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은 ‘개인적 교수효능감(personal teaching efficacy)’으로 구분하였다(Ashton et al., 1983; Gibson & Dembo, 1984). 교사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8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초를 두고, 교사효능감을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구성해나가는 자기효능감의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특정 수준에서 과제를 수행해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 정도인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인 ‘효능기대(efficacy expectation)’로 구성되어 있다(Bandura, 1997).

한편,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은 반두라의 이론에 토대를 두고 특정 교육과정 영역에서의 교사효능감을 측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김선영, 이경옥, 2005; 임무경, 2008). 릭스와 에녹스(Riggs & Enochs, 1990)는 김슨과 템보(Gibson & Dembo)의 교사효능감 척도(Teacher Efficacy Scale)를 기초로 과학 교수효능감 척도(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를 개발하였고, 엠멀과 히크맨(Emmer & Hickman, 1991) 역시 김슨과 템보의 개념구조에 따라 학급경영 및 생활지도 효능감, 외적영향 효능감, 개인적 교수효능감의 3개 차원을 포함하는 학급경영 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국내 연구로 신은수, 유영의, 박현경(2004)은 놀이에 대한 교수효능감 도구를 개발하였다. 에녹스, 스미스, 후인켈(Enochs, Smith, & Huinker, 2002)는 앞서 릭스와 에녹스가 개발한 척도를 기초로 수학 교수효능감 척도(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Beliefs Instrument)를 개발

하였고, 국내에서 김은심과 박수미(2003)는 릭스와 에녹스의 척도를 수정하여 동작교수 효능감 측정연구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영역 특수성(domain-specific)에 기초하여 교수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어 개념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교사효능감을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슨과 템보의 척도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그 하위요인들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과목 특정적인 목적으로 변용되어 사용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교사의 효능감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Bandura, 2006; Tschannen-Moran & Hoy, 2001).

교사가 인식하는 자신의 능력은 특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김연하, 김양은, 2008). 예를 들면, 어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는데 높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으나 학생들의 훈육이나 문제행동지도에 낮은 효능감을 보일 수 있다. 어떤 교사는 교사들 간의 협력에 높은 효능감을 가지나 학부모와의 관계에는 낮은 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 반두라(1997)는 교사효능감이 상황 특수적인 특성을 갖고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보고 의사결정 효능감, 학교자원관리 효능감, 수업효능감, 생활지도 효능감, 학부모참여 효능감, 지역사회참여 효능감, 학교조직분위기 효능감의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30문항의 다면적 교사효능감 척도(Teacher Self-efficacy Scale)를 개발하였다. 찬넨-모란과 호이(Tschannen-Moran & Hoy, 2001)는 TSES를 차용하여 교사효능감을 학생참여, 교수전략, 학급운영 효능감으로 나누어 교사효능감 척도(Teachers' Sense of Efficacy Scale, 또는 Ohio State Teacher Efficacy Scale라고도 함)를 개발하였다. 국내에서도 김유정(2005)은 OSTES를 수정하여 가정 교과의 교사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를 제안하였고, 김선영과 서소정(2010)은 반두라의 연구와 찬넨-모란과 호이의 연구

* 김슨과 템보는 일반적 교수효능감을 결과기대로, 개인적 교수효능감을 효능기대로 보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적 효능감과 효능기대의 관계는 동의하지만, 일반적 교수효능감과 결과기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반두라는 두 개념은 별개의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사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갖는 기대인 결과기대는 교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인과 관계적 신념인 일반적 교수효능감과 같을 수 없다고 하였다.

를 토대로 하여 6개 하위 영역(영유아에 대한 연속적인 환경경험의 제공, 환경 및 일과 구성, 학급운영관리, 교수, 돌봄,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유아 교사효능감 척도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임무경(2008)도 교과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지도, 행정업무처리, 대인관계의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체육교사효능감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상황 특수적인 개념적 구조에 기초하여 교사효능감을 교수 뿐만 아니라 교사 업무 전반으로 확장하여 측정함으로써 교사의 다양한 상황과 역할의 특수성을 감안한 교사효능감 척도를 제안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발휘해야 하는 능력은 매우 다차원적이다. 교사들은 지식 전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훈육하고 다양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지역사회기관 연계활동을 계획해야 하며 학부모들과 협력해야 하는 등 일상적으로 다양한 업무에 부딪친다. 이는 음악교사도 예외는 아니다. 분명히 학교교육에서 음악교사의 효능감은 교과지도 측면만을 고려할 수 없다. 교과지도는 물론 생활지도, 특별활동지도, 행정업무처리, 대인관계 등 기존의 교사효능감 척도에서 범주화된 다양한 직무영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적 상황에 대처하는 음악교사로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측정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교사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수행 영역과 각 직무영역별 음악교사 효능감의 구성요인을 탐색한 결과(최미영, 2012)를 토대로 음악교사의 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교사효능감 척도는 교사의 교육적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개인차 변인이기 때문에 타당하고 신뢰로운 음악교사효능감 척도의 개발은 음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사효능감 척도는 교사효능감 수준이 낮은 교사에게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실질적으로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효능감이 증진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는 음악교사의 교사효능감 연구의 기초자료 및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긍정적인 교사효능감의 증진을 위한 음악교사교육과 같은 교육

정책 입안과 질 높은 학교 음악교육의 실제적 발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초·중등학교 음악교과 담당교사 총 463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음악교사들의 인구 사회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 사회적 특성

		빈도(n)	백분율(%)
학교급	초등	235	50.8
	중등	228	49.2
	계	463	100
성별	남자	97	21
	여자	365	79
	계	462	100
학력	대졸	147	32
	대학원 재학	143	31
	대학원 졸업 이상	170	37
	계	460	100
전체		463	100

음악교사의 근무학교는 초등학교 교사가 235명(50.8%), 중등학교 교사가 228명(49.2%)이고, 성별은 남자교사가 97명(21%), 여자교사가 365명(79%)이었다.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147명(32%), 대학원 재학이 143명(31%), 대학원 졸업 이상이 170명(37%)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교직 경력은 평균 11.4년(SD=8.39)이었다.

2. 연구절차

음악교사효능감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교사효능감 및 교사효능감 척도 개발 관련 연구들과 기존 척도 검토, 음악교사효능감 척도 1차 시안 제작 및 검토, 음악교사효능감 척도 1차 예비조사 실시, 2차 시안 제작 및 2차 예비조사 실시, 최종 시안 확정, 본 조사 실시, 자료 분석의 순서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비조사

먼저 문헌연구 및 개방형 설문조사와 면접을 통해 음악교사효능감의 구성요인을 탐색한 연구(최미영, 2012)를 토대로 음악교사효능감 척도의 1차 시안을 개발하였다. 제작된 1차 시안의 예비문항에 대해 음악교사효능감의 영역구성 및 영역별 문항내용 구성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해 음악교육 전공교수 2명 및 초·중등 음악교사 5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 1차 전문가 협의회로부터 검토를 거쳐 1차 시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1차 시안은 초·중등 음악교사 10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항내용의 이해도 및 문항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1차 예비 설문조사 실시 후에는 문항 분석 및 실시문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2차 시안을 제작하였다. 수정 보완된 2차 시안은 전문가 협의회와 초·중등 음악교사 1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예비 설문조사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와 같은 2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예비 설문조사를 통해 음악교사효능감 척도의 최종 시안을 확정하였다.

2) 측정도구

(1) 음악교사효능감 예비척도

개방형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내용의 귀납적 분석과 면접을 통한 검토를 거쳐 음악교사효능감을 구성하는 5개의 직무영역의 11개의 하위요인을 도

출하였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음악교사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각하는 신념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75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고, 전문가 자문 및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삭제, 추가, 보완 등의 수정작업을 거쳐 46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각 직무영역의 하위요인별 문항 수는 <표 2>와 같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약간 그렇지 않다'에 3점, '약간 그렇다'에 4점, '그렇다'에 5점, '매우 그렇다'에 6점과 같이 리커트(Likert)식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제작하였다.

<표 2> 음악교사효능감 예비척도의 영역별 요인과 구성문항 수

영역	요인	문항 수
음악교과지도	음악수업 지도 및 운영	19
	음악교사 자질 함양	
생활지도	인성교육	7
	학생 이해 및 존중	
음악관련 특별활동지도	동아리 및 계발부서 지도	8
	음악 행사 운영	
행정업무	업무 추진	4
	문서 행정능력	
대인관계	자기 조절	8
	교사 간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2)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맥락 특수적, 영역 특수적과 같은 다른 특수 자기효능감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Kim & Park, 2000),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특수 자기효능감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황과 과제에 영향을 받는 특수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Eden, 1988).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으로서의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김아영, 1997). 송윤아(2010)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다양한 장면에서 개인의 전반적 수행과 적응을 예측하고 과제와 상황에 따라 매번 측정하기 어려운 여러 특수 자기효능감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로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반응형식은 리커트 방식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내적 합치도(Guttman-Cronbach's α)는 .867-.874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개발된 음악교사효능감 척도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총 10문항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함께 실시하였다.

3) 본 조사

본 조사는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음악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학교급별, 성별 및 교육경력을 고려한 편의표본추출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는 설문지에 대한 안내문, 반송용 봉투, 설문지를 동봉한 우편발송이거나 이메일 발송 또는 연구자에 의한 직접 배포 및 수거와 초·중등교사나 음악교육과 교수님들을 통한 간접적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552부가 수거되었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자료 활용이 어려운 89부를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총 463부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먼저 음악교사효능감 예비척도의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방식은 직교회전(Varimax)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인타당도 확보를 통해 최종 선정된 문항을 바탕으로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 간 상관 및 내적 합치도 검증을 중심으로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음악교사효능감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송윤아가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10문항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 관련 변인들과 척도의 하위영역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 Win ver 1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유의도는 $p < .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Ⅲ. 연구결과

1. 타당도와 신뢰도

1) 내용타당도

음악교사효능감 척도의 2차 시안(46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와 초·중등 음악교사 10명에게 의뢰하여 문항의 적절성(음악교사효능감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문항 내용인가) 및 문항의 중요성(음악교사효능감을 측정하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항 내용인가)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평정결과, 문항 적절성과 문항 중요성의 평균은 각각 3.00-3.82, 3.12-3.88로 나타나 내용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교사효능감 척도의 2차 시안에 대한 각 영역별 문항적절성과 문항중요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음악교사효능감 척도의 내용타당도

영역		평균(M)	표준편차(SD)
음악교과지도	문항적절성	3.59	.16
	문항중요성	3.59	.23
생활지도	문항적절성	3.52	.21
	문항중요성	3.62	.26
음악관련 특별활동지도	문항적절성	3.38	.24
	문항중요성	3.38	.18
행정업무	문항적절성	3.43	.16
	문항중요성	3.41	.14
대인관계	문항적절성	3.57	.19
	문항중요성	3.54	.16

2) 구인타당도

개발한 음악교사효능감 척도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KMO)과 Bartlett 검증을 한 결과, 음악교사효능감 척도의 46문항들은 요인분석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KMO=.955;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X^2(990)=15868.713$, $p<.001$). 따라서 음악교사효능감 척도의 영역들이 제대로 묶여져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두 차례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문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5개의 영역구분이 적합한지를 살펴보았다. 고유치 1 이상을 기준으로 추출하였으며 최소 .40의 수치로 요인에 부하되고 다른 요인에 부하되지 않은 문항들만 선정한 결과, 총 5개의 요인(영역)에 44문항이 추출되었다. 44문항은 .40이상의 요인부하량으로 각 영역에 부하되었고, 5개 영역의 총 설명변량은 62.81%로 나타났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악교사효능감이 가장 많이 설명하는 영역은 음악교과지도로 나타났으며, 이 영역은 음악교사효능감의 41.53%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생활지도 영역이 7.54%, 음악관련 특별활동지도 영역이 5.81%, 행정업무 영역이 3.98%, 대인관계 영역이 3.55%의 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음악교사효능감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I

	음악교과 지도	생활지도	음악관련 특별활동지도	행정업무	대인관계
문항 수	16	8	10	4	6
요인부하량	.451- .757	.575- .779	.486- .481	.628- .745	.437- .808
고유치	19.104	3.470	2.674	1.831	1.612
설명변량(%)	41.53	7.54	5.81	3.98	3.55
총 변량(%)	62.81				

다음으로 5개 영역에 대해 설정한 하위요인들이 제대로 묶여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영역별 구성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영역별로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 및 여러 요인에 걸쳐 적재된 13 문항을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한 결과, 총 9개 요인 31문항이 추출되었다. 즉 음악교과지도 영역에서 2개 요인(I, II)의 11문항, 생활지도 영역에서 2개 요인(III, IV)의 5문항, 음악관련 특별활동지도 영역에서 2개 요인(V, VI)의 6문항, 행정업무 영역에서 1개 요인(VII)의 3문항, 대인관계 영역에서 2개 요인(VIII, IX)의 6문항이 추출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악교과지도 영역의 요인 I인 음악수업 지도 및 운영은 8문항(고유치=5.821, 설명변량=52.91)과 요인 II인 음악교사 자질 함양은 3문항(고유치=1.803, 설명변량=9.85)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지도 영역의 요인 III인 인성교육은 2문항(고유치=1.658, 설명변량=13.16)과 요인 IV인 학생 이해 및 존중은 3문항(고유치=3.310, 설명변량=66.20)으로 나타났다. 음악관련 특별활동지도 영역의 요인 V인 동아리 및 계발부서 지도는 4문항(고유치=4.603, 설명변량=76.71)과 요인 VI인 동아리 및 계발부서 운영은 2문항(고유치=1.717, 설명변량=11.95)으로, 행정업무의 요인 VII은 3문항(고유치=3.143, 설명변량=78.58)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 영역의 요인 VIII인 교사 간의 관계는 3문항(고유치=3.595, 설명변량=59.92)과 요인 IX인 학부모와의 관계는 3문항(고유치=1.049, 설명변량=17.48)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음악교사효능감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II

문항 번호	음악교과지도		생활지도		음악관련 특별활동지도		행정 업무	대인관계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요인 VI	요인 VII	요인 VIII	요인 IX
8번	.818								
9번	.791								
11번	.731								
10번	.713								
12번	.696								
4번	.688								
5번	.682								
7번	.666								
15번		.858							
14번		.828							
19번		.662							
21번			.893						
20번			.861						
24번				.854					
22번				.773					
23번				.721					
28번					.900				
29번					.890				
27번					.881				
30번					.854				
32번						.917			
31번						.793			
35번							.916		
36번							.881		
37번							.747		
42번								.872	
43번								.853	
41번								.798	
45번									.876
46번									.848
44번									.776

이상의 음악교사효능감 예비척도 46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5개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5문항이 삭제되어 최종적으로 9개 요인 31문항에 대해 구인타당성이 확인되었다.

3) 신뢰도

요인분석을 통해 확정된 31문항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 간 상관 및 내적 합치도를 중심으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각 문항의 평균은 4.26-5.37로 극단적인 값을 가지는 문항은 나타나지 않았고, 표준편차는 .574-.932로 지나치게 작은 표준편차를 보이는 문항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문항-총점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도 .475-.830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영역별 신뢰도는 .86-.93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5로 높게 나타났다. 음악교사효능감 척도 최종안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음악교사효능감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영역	요인	최종 문항 수	평균	표준 편차	Cronbach α
음악교과 지도	음악수업 지도 및 운영	8	4.90	.643	.91
	음악교사 자질 함양	3			
생활지도	인성교육	2	4.81	.750	.87
	학생 이해 및 존중	3			
음악관련 특별활동 지도	동아리 및 계발부서 지도	4	4.60	.932	.93
	동아리 및 계발부서 운영	2			
행정업무	업무 추진	3	4.84	.821	.89
대인관계	교사 간의 관계	3	5.09	.574	.86
	학부모와의 관계	3			
계		31	4.85	.600	.95

4) 공인타당도

음악교사효능감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송윤아(2010)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척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80$)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개발한 음악교사효능감 척도가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관련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인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표 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음악교사효능감 척도 간 상관계수

		일반적 자기효능감	음악교사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Pearson 상관계수	1	.80**
	유의확률(양쪽)		.000
	제곱합 및 교차곱	232.987	159.104
	공분산	.504	.342
	N	463	436
음악교사 효능감	Pearson 상관계수	.80**	1
	유의확률(양쪽)	.000	
	제곱합 및 교차곱	158.104	166.565
	공분산	.342	.361
	N	463	463

** $p<.05$

이상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음악교사효능감 척도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8> 음악교사효능감 척도의 최종문항

영역/요인		문항내용
음악 교과 지도	음악 수업 지도 및 운영	나는 음악 수업 내용과 관련된 적절한 동기 유발 활동을 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이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차를 고려하여 수업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의 음악 수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나는 교사-학생, 학생 간에 활발한 음악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나는 음악 수업에서 학생들의 예기치 못한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나는 음악수업에서 학생들의 활동 또는 반응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나는 음악 학습 과정에 맞는 평가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음악교사 자질 함양	나는 음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갖고 있다.
		나는 수업에 필요한 음악 실기 능력을 갖고 있다.
생활 지도	인성교육	나는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형성 지도에 자신이 있다.
		나는 학교부적응학생을 지도하는데 자신이 있다.
	학생 이해 및 존중	나는 학생지도시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칭찬과 꾸중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태도를 형성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음악 관련 특별 활동 지도	동아리 및 계발부서 지도	나는 음악 동아리(상설 포함)나 계발부서를 지도하는데 자신이 있다.
		나는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해서 음악 동아리(상설 포함)나 계발부서를 지도할 수 있다.
		나는 음악 동아리(상설 포함)나 계발부서를 통해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나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음악 동아리(상설 포함)나 계발부서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동아리 및 계발부서 운영	나는 음악 동아리(상설 포함)나 계발부서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자신이 있다.
		나는 음악 관련 재정적 지원에 대해 관리자를 이해시키는데 자신이 있다.
행정업무		나는 담당 업무 기획에 자신이 있다.
		나는 담당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나는 협조를 통한 업무처리에 자신이 있다.
대인 관계	교사 간의 관계	나는 학교 관리자 및 동료 교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나는 동료 교사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
		나는 동료 교사들과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학부모와의 관계	나는 학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나는 학부모에게 학교 활동에 대한 협조 및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나는 학생과 관련한 학부모 상담에 자신이 있다.

2. 연구대상자 관련 변인들에 따른 음악교사효능감

음악교사 관련 변인(학교급, 성별, 학력, 경력)에 따라 음악교사효능감 각 영역(음악교과지도, 생활지도, 음악관련 특별활동, 행정업무, 대인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일원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1) 학교급에 따른 음악교사효능감의 차이

음악교사효능감은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역별 효능감에서는 음악교과지도 영역과 생활지도 영역에서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악교과지도 영역에서는 중등교사(M=5.00)가 초등교사(M=4.81)보다 효능감이 더 높은 반면, 생활지도 영역에서는 초등교사(M=4.90)가 중등교사(M=4.72)보다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역에 따른 하위요인별 분석 결과에서는 음악교과지도 영역의 음악교사 자질 함양 요인과 생활지도 영역의 두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교사 자질 함양 요인에서는 초등교사(M=4.77)보다 중등교사(M=5.10)의 효능감이 더 높았으며, 인성교육과 학생 이해 및 존중 요인에서는 모두 중등교사(M=4.48, 4.95)보다 초등교사(M=4.68, M=5.11)의 효능감이 더 높았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학교급에 따른 음악교사효능감

변량원			평균(M)	표준편차(SD)	T	P
음악 교과 지도	음악수업 지도 및 운영	초등	4.85	.680	.784	.433
		중등	4.90	.634		
	음악교사 자질 함양	초등	4.77	.845	4.689	.000*
		중등	5.10	.650		
	계	초등	4.81	.689	3.172	.002*
		중등	5.00	.579		

생활 지도	인성교육	초등	4.68	.860	2.202	.028*
		중등	4.48	1.07		
	학생 이해 및 존중	초등	5.11	.665	2.604	.010*
		중등	4.95	.660		
	계	초등	4.90	.705	2.59	.010*
중등		4.72	.785			
음악 관련 특별 활동 지도	동아리 및 계발부서 지도	초등	4.79	1.027	1.213	.226
		중등	4.90	.880		
	동아리 및 계발부서 운영	초등	4.31	1.093	.932	.352
		중등	4.40	1.051		
	계	초등	4.55	.986	1.158	.248
		중등	4.65	.872		
행정업무		초등	4.84	.810	.065	.948
		중등	4.83	.833		
대인 관계	교사 간의 관계	초등	5.31	.583	.014	.989
		중등	5.31	.547		
	학부모와의 관계	초등	4.86	.714	.108	.914
		중등	4.87	.772		
	계	초등	5.09	.575	.063	.950
		중등	5.09	.573		
전반적	음악교사효능감	초등	4.84	.596	.384	.701
		중등	4.86	.606		

*p<.05

2) 성별에 따른 음악교사효능감의 차이

음악교사효능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역별 효능감에서는 음악관련 특별활동지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교사(M=4.54)보다는 남자교사(M=4.84)의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역에 따른 하

위요인별 분석 결과에서도 특별활동 영역의 두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및 계발부서 지도와 운영 요인에서 여자교사(M=4.79, M=4.28)보다 남자교사(M=5.06, M=4.62)의 효능감이 더 높았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성별에 따른 음악교사효능감

변량원			평균(M)	표준편차(SD)	T	P
음악 교과 지도	음악수업 지도 및 운영	남자	4.85	.687	.462	.644
		여자	4.88	.651		
	음악교사 자질 함양	남자	4.88	.856	.853	.431
		여자	4.95	.750		
	계	남자	4.86	.708	.748	.455
		여자	4.92	.627		
생활 지도	인성교육	남자	4.75	.910	1.974	.050
		여자	4.54	.987		
	학생 이해 및 존중	남자	4.96	.640	1.191	.236
		여자	5.05	.674		
	계	남자	4.85	.699	.706	.481
		여자	4.79	.764		
음악 관련 특별 활동 지도	동아리 및 계발부서 지도	남자	5.06	.779	2.923	.004*
		여자	4.79	.994		
	동아리 및 계발부서 운영	남자	4.62	.963	2.992	.003*
		여자	4.28	1.091		
	계	남자	4.84	.798	3.232	.001*
		여자	4.54	.956		
행정업무		남자	4.97	.768	1.942	.054
		여자	4.80	.832		
대인 관계	교사 간의 관계	남자	5.26	.621	1.015	.311
		여자	5.32	.550		
	학부모와의 관계	남자	4.89	.807	.401	.688
		여자	4.86	.726		
	계	남자	5.08	.618	.240	.811
		여자	5.09	.563		
전반적	음악교사효능감	남자	4.92	.595	1.383	.170
		여자	4.83	.602		

*p<.05

3) 학력에 따른 음악교사효능감의 차이

음악교사효능감은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 결과, 대학원 졸업교사의 효능감이 대졸이나 대학원 재학 중인 교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효능감에서는 5개 영역 모두에서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음악교과지도 영역과 행정업무 영역에서는 대학원 졸업교사의 효능감이 대졸이나 대학원 재학 중인 교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지도 영역과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대학원 졸업교사의 효능감이 대학원 재학 중인 교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악관련 특별활동지도 영역에서는 대학원 졸업교사의 효능감이 대졸교사의 효능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에 따른 하위요인별 분석 결과에서는 대인관계 영역의 교사 간의 관계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악교과지도 영역의 두 하위요인 모두에서는 대학원 졸업교사의 효능감이 대졸이나 대학원 재학 중인 교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지도 영역의 두 하위요인 모두에서는 대학원 졸업교사의 효능감이 대학원 재학 중인 교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관련 특별활동지도 영역의 동아리 및 계발부서 지도 요인에서는 대학원 졸업교사의 효능감이 대졸이나 대학원 재학 중인 교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아리 및 계발부서 운영 요인에서는 대학원 졸업교사의 효능감이 대졸교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인관계 영역의 학부모와의 관계 요인에서는 대학원 졸업교사의 효능감이 대학원 재학 중인 교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학력에 따른 음악교사효능감

변량원			평균(M)	표준편차(SD)	F	P
음악 교과 지도	음악수업 지도 및 운영	대졸(A)	4.78	.665	8.710	.000*
		대학원(B)	4.78	.619		A<C
		대학원졸(C)	5.04	.656		B<C
	음악교사 자질 함양	대졸(A)	4.75	.886	9.226	.000*
		대학원(B)	4.91	.670		A<C
		대학원졸(C)	5.12	.708		B<C
	계	대졸(A)	4.77	.699	10.672	.000*
		대학원(B)	4.85	.574		A<C
		대학원졸(C)	5.08	.615		B<C
생활 지도	인성교육	대졸(A)	4.51	.926	3.056	.048*
		대학원(B)	4.49	.993		B<C
		대학원졸(C)	4.73	.991		
	학생 이해 및 존중	대졸(A)	5.02	.671	3.172	.043*
		대학원(B)	4.94	.693		B<C
		대학원졸(C)	5.13	.626		
	계	대졸(A)	4.77	.726	3.609	.028*
		대학원(B)	4.71	.784		B<C
		대학원졸(C)	4.93	.732		
음악 관련 특별 활동 지도	동아리 및 계발부서 지도	대졸(A)	4.62	1.029	6.481	.002*
		대학원(B)	4.89	.912		A<B
		대학원졸(C)	5.00	.908		A<C
	동아리 및 계발부서 운영	대졸(A)	4.15	1.114	5.833	.003*
		대학원(B)	4.33	1.018		A<C
		대학원졸(C)	4.56	1.055		
	계	대졸(A)	4.39	.991	7.149	.001*
		대학원(B)	4.61	.865		A<C
		대학원졸(C)	4.78	.908		
행정업무		대졸(A)	4.68	.775	7.858	.000*
		대학원(B)	4.77	.884		A<C
		대학원졸(C)	5.03	.773		B<C
대인 관계	교사 간의 관계	대졸(A)	5.25	.522	3.010	.050
		대학원(B)	5.28	.623		
		대학원졸(C)	5.39	.541		
	학부모와의 관계	대졸(A)	4.54	.696	3.375	.035*
		대학원(B)	4.76	.834		B<C
		대학원졸(C)	4.98	.693		
	계	대졸(A)	5.04	.542	3.900	.021*
		대학원(B)	5.02	.642		B<C
		대학원졸(C)	5.18	.532		
전반적 음악교사효능감		대졸(A)	4.73	.595	9.246	.000*
		대학원(B)	4.79	.601		A<C
		대학원졸(C)	5.00	.580		B<C

*p<.05

4) 경력에 따른 음악교사효능감의 차이

음악교사효능감은 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 결과, 10년 이하 경력의 교사보다 10년 이상-20년 미만과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효능감에서는 5개 영역 모두에서 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0년 이하 경력의 교사보다 10년 이상-20년 미만과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에 따른 하위요인별 분석 결과에서는 음악교과지도 영역의 음악교사 자질 함양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특별활동 영역의 동아리 및 개발부서 지도 요인에서는 10년 이상-20년 미만 경력의 교사효능감이 10년 이하 경력의 교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 영역의 교사 간의 관계 요인에서는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효능감이 10년 이하 경력의 교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요인들에서는 10년 이하 경력의 교사보다 10년 이상-20년 미만과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경력에 따른 음악교사효능감

변량원			평균 (M)	표준편차 (SD)	F	P
음악 교과 지도	음악수업 지도 및 운영	10년 이하(A)	4.72	.624	15.609	.000* B>A C>A
		10년 이상-20년 미만(B)	5.05	.598		
		20년 이상(C)	5.05	.733		
		계	4.87	.658		

생활지도	음악교사 자질 함양	10년 이하(A)	4.87	.773	2.625	.074
		10년 이상-20년 미만(B)	5.06	.739		
		20년 이상(C)	4.95	.805		
		계	4.94	.772		
	계	10년 이하(A)	4.79	.616	8.504	.000* B>A C>A
		10년 이상-20년 미만(B)	5.05	.611		
		20년 이상(C)	5.00	.713		
		계	4.90	.643		
	인성교육	10년 이하(A)	4.39	.963	10.363	.000* B>A C>A
		10년 이상-20년 미만(B)	4.81	.864		
		20년 이상(C)	4.78	1.054		
		계	4.58	.973		
	학생 이해 및 존중	10년 이하(A)	4.89	.689	12.868	.000* B>A C>A
		10년 이상-20년 미만(B)	5.16	.600		
		20년 이상(C)	5.24	.622		
		계	5.03	.667		
	계	10년 이하(A)	4.64	.751	13.497	.000* B>A C>A
		10년 이상-20년 미만(B)	4.99	.663		
		20년 이상(C)	5.01	.766		
		계	4.81	.750		
음악 관련 특별 활동 지도	동아리 및 계발부서 지도	10년 이하(A)	4.73	.995	4.921	.008* B>A
		10년 이상-20년 미만(B)	5.05	.799		
		20년 이상(C)	4.87	1.027		
		계	4.85	.958		
	동아리 및 계발부서 운영	10년 이하(A)	4.11	1.055	14.968	.000* B>A C>A
		10년 이상-20년 미만(B)	4.62	.992		
		20년 이상(C)	4.67	1.073		
		계	4.36	1.072		
	계	10년 이하(A)	4.42	.940	10.633	.000* B>A C>A
		10년 이상-20년 미만(B)	4.83	.794		
		20년 이상(C)	4.77	1.003		
		계	4.60	.932		

행정업무		10년 이하(A)	4.66	.835	13.257	.000* B>A C>A
		10년 이상-20년 미만(B)	5.05	.721		
		20년 이상(C)	5.02	.811		
		계	4.84	.821		
대인 관계	교사 간의 관계	10년 이하(A)	5.24	.577	4.961	.000* C>A
		10년 이상-20년 미만(B)	5.36	.561		
		20년 이상(C)	5.44	.507		
		계	5.31	.565		
	학부모와 의 관계	10년 이하(A)	4.73	.728	10.208	.000* B>A C>A
		10년 이상-20년 미만(B)	4.96	.734		
		20년 이상(C)	5.11	.721		
		계	4.87	.743		
	계	10년 이하(A)	4.99	.555	9.895	.000* B>A C>A
		10년 이상-20년 미만(B)	5.16	.579		
		20년 이상(C)	5.28	.560		
		계	5.09	.574		
전반적 음악교사효능감		10년 이하(A)	4.70	.570	17.204	.000* B>A C>A
		10년 이상-20년 미만(B)	5.02	.546		
		20년 이상(C)	5.02	.656		
		계	4.85	.600		

*p<.05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중등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음악교사효능감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음악교사효능감을 구성하는 직무수행 영역과 구성요인을 탐색한 연구(최미영, 2012)를 토대로 음악교사효능감 예비척도를 제작하고 463명의 음악교사에

게 실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5개 영역의 9개 요인에 걸쳐 총 31문항의 음악교사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6문항으로 구성된 음악교사효능감 예비척도를 전문가 협의회와 초·중등 음악교사에게 의뢰하여 문항의 적절성 및 중요성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하게 한 결과, 문항 적절성과 문항 중요성의 평균은 각각 3.00-3.82, 3.12-3.88로 나타나 내용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성분 요인분석과 직교회전을 실시하여 음악교사효능감 척도의 영역들이 제대로 묶여져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1차 요인 분석한 결과, 총 5개 영역에 44문항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5개 영역의 총 설명변량은 62.81%로 나타났다. 음악교사효능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영역은 음악교과지도 영역이었으며, 다음으로 생활지도 영역, 음악관련 특별활동지도 영역, 행정업무 영역, 대인관계 영역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5개 영역에 대해 설정한 하위요인들이 제대로 묶여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2차 요인 분석한 결과, 총 9개 요인 31문항이 추출되었다. 따라서 두 차례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최종적으로 5개 영역에서 9개 요인의 총 31문항에 대해 구인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음악교사효능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5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 신뢰도는 음악교과지도는 .91, 생활지도는 .87, 음악관련 특별활동지도는 .93, 행정업무는 .89, 대인관계는 .86의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하위 영역별 구성문항의 적절성이 검증되었다.

넷째, 음악교사효능감 척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송운아, 2010)와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척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r=.80$)가 나타나 공인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다섯째, 연구대상자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음악교사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음악교사효능감은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과 경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교사의 학력 및 경력이 교사효능감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관련 연구(김선영, 서소정, 2010;

김연하, 김양은, 2008; 장영숙 외, 2004; 조형숙, 1998; De la Torre Cruz & Casanova Arias, 2007)의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음악교과지도 영역에서는 중등교사가 초등교사보다 효능감이 더 높은 반면에 생활지도 영역에서는 초등교사가 중등교사보다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악관련 특별활동지도 영역에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가 생활지도 면에서, 중등교사가 음악교과지도 면에서 효능감이 더 높다는 결과는 교사의 특성변인 중 교육 환경적 특성이 교사효능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일 수 있다는 사실(주동범, 임성택, 2002; Bandura, 1997)을 지적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표집절차에 의해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척도의 타당성을 향상시키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교차타당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준거관련타당도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상관을 살펴본 결과, 높은 상관계수를 얻었으나 교사들의 수행수준 및 성취도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변수로 교사들의 근무교가나 학생들의 음악 학업성취도를 살펴보는 것은 보다 나은 준거타당도가 될 것이다. 셋째, 후속 연구를 통해 교사로서의 경험 만족도, 직업만족도, 직업관련 향후 계획, 목표지향성 등 교사효능감에 관련된 변인들과 척도의 하위요인 간의 관련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음악교사효능감 척도는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척도로, 후속 연구를 통한 정련의 과정을 거쳐 음악교과 또는 다양한 직무상황에서 교사의 수행을 예측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된 음악교사효능감 척도가 음악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관련된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음악교사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타당한 척도로 완성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영, 서소정(2010). 유아 교사 효능감 척도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31(4), 91-110.
- 김선영, 이경옥(2005).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개념과 측정구조에 대한 분석. *유아교육연구*, 25(3), 267-287.
- 김아영(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수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 김아영, 김미진(2004). 교사효능감 척도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8(1), 37-58.
- 김연하, 김양은(2008). Bandura의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 요인구조 분석. *유아교육연구*, 28(2), 169-191.
- 김유정(2005). 가정과교사의 교사 효능감 측정도구 타당도 검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2), 129-143.
- 김은심, 박수미(2003). 유치원 교사의 동작교수 효능감에 따른 동작교육에 대한 태도 및 교수실제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2), 241-266.
- 박관성(1999). 교사효능감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임무경(2008). 체육교사효능감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한국체육학회지*, 47(4), 113-122.
- 송윤아(2010).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신은수, 유영의, 박현경(2004). 유아 교사의 놀이에 대한 교수효능감과 놀이 운영 실제 신념에 관한 도구 개발연구. *유아교육연구*, 24(1), 49-69.
- 장영숙, 황윤세, 최미숙(2004). 유아교사의 교육신념과 교수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25(6), 117-130.
- 조형숙(1998). 유아교사의 과학교수에 대한 자기 효능감. *유아교육연구*, 18(2), 283-301.
- 최미영(2012). 음악교사효능감의 직무수행영역 확인 및 구성요인 탐색. 음

악과 문화, 26, 151-176.

- Ashton, P. (1985). Motivation and the teacher's sense of efficacy. In C. Ames & R. Ames (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Vol. 2, Orlando, FL: Academic Press.
- Ashton, P., Webb, R. & Doda, N. (1983). *A study of teachers' sense of efficac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231-834.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andura, A. (2006). Guiding for constructing self-efficacy scales.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pp. 307-337),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De la Torre Cruz, M. J. & Casanova Arias, P. F. (2007). Comparative analysis of expectancies of efficacy in-service and prospective teacher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3, 641-652.
- Eden, D. (1988). Pygmalion, goal setting, and expectancy: Compatible ways to raise productiv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 639-652.
- Emmer, E. & Hickman, J. (1991). Teacher efficacy in classroom management and disciplin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1, 755-765.
- Enochs, L., Smith, P. & Huinker, D. (2002). Establishing factorial validity of the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beliefs instrument. *School Science and Mathematics*, 100(4), 194-202.
- Gibson, S. & Dembo, M. (1984). Teacher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4), 569-582.
- Kim, A., & Park, I. (2000). *Hierarchical structure of self-efficacy in terms of generality levels and its relations to academic*

performance: General, academic, domain-specific, and subject-specific self efficac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LA.

Riggs, I. & Enochs, L. (1990).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teacher's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cience Education*, 74, 625-638.

Rotter, J. (199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1-28.

ABSTRACT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Music Teacher Efficacy Scale

Mi Young Choi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music teacher efficacy scale and verify its validation. In the process, music teacher efficacy preliminary scale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previous study that had been identified job-related areas that affect music teachers' efficacy and its components in each job-related area. The preliminary scale was administered to 463 elementary and secondary music teachers and the data was analyzed. As a result, a total of 31 items with 9 sub-constructs in the 5 areas was identified by the means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es, thus clearly establishing the construct validity. The overall internal consistency was quite high(Cronbach α =.95). In addition, the concurrent validity between this scale and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was established. The overall level of music teacher efficacy was of no significance according to the variables of school and gender; however the overall music teacher efficacy level was of significance according to the variable of education level.

key words: music teacher efficacy, scale construction, scale validation

투고일: 6월 30일, 심사(수정): 7월 12일(8월 2일), 게재확정일: 8월 12일